

# “동양적인 것이 오히려 더 현대적이다”

## 유교자본주의론 등 서양식 합리주의 지양 주장하는 책들 주목받아

“孔孟사상으로 비행기 참사 막자.” 「시사저널」 5월 6일자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주최의 심포지움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논문이 채택되었는데, 한국항공대 홍순길 교수의 「한국 항공산업에서의 인적 기술 개발과 전문기능인의 근무자세—공자사상이 지배하는 동양사회에서의 직업항공인의 훈련」이 그것으로 “동양의 군자형 지도력과 장유유서의 위계질서를 항공기 조종사를 위한 훈련지침으로 제시” 했다는 것이다.

### 8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유교자본주의론

8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관련해 그 잠재력이 유교정신이 있었다는 지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바야흐로 세부적인 분야까지 적용시키고 있는 추세에 일단은 보여준 셈이다. 막스 베버 이래 유교가 동양사회의 정체성을 초래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으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그 반대로 유교야말로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다는 해석으로 바뀌고 있는 것. 이쯤하여 「유교자본주의론」.

현재 유교자본주의만을 「표나게」 다룬 「단행본」으로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마음의 경제학」(송병락 저, 박영사, 1987)이 유일하다. 85년에 출간된 「유교문화권의 질서」(김일근 저, 한국경제신문사)도 다루고 있으나 절판되어 구하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 日本, 그 힘은 어디서」(연합통신), 「일본의 실력」(조선일보사) 등 현대일본 경제를 해부한 저작물들은 한결같이 일본의 유교문화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음을 밝힌다는 점에서 「유교자본주의론」을 다룬 책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한국경제론」(송병락 저, 박영사) 제3판 및 「현대경제이론과 한국경제의 제문제」(신현종 외 저, 법문사) 등 「한국경제론」을 다루는 최근의 경제학 저서들에서도 부분적이거나 지면을 할애한다.

이들 책에 의하면, 경제와 마음(문화)의 관련성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세계종교의 경제윤리」 「경제와 사회」에서 비롯해 20세기의 세계적 경제학자들의 책에서도 깊이있게 다루어져왔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문화에서 찾는 작업이 결코 건강부회의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음의 경제학」을 쓴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읽은 막스 베버에 의하면 전통적

경제전쟁시대를 살아가는

윤리관으로 신유교윤리가 제창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정신인 신유교윤리는

서구의 청교도윤리에 버금가는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유교자본주의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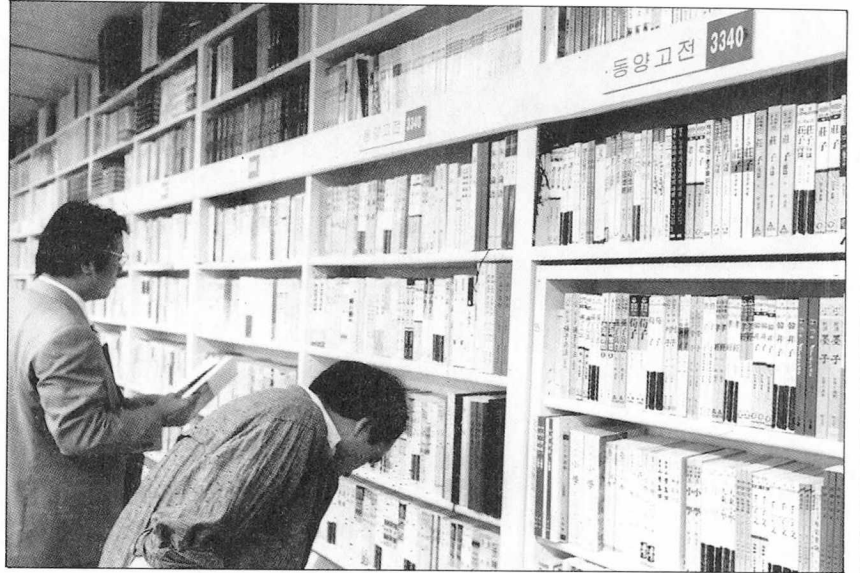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원천을

유교문화에서 찾고 있다.

인 유교윤리가 자본주의의 정신이 되기에 부적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개인주의사상의 결핍과 집단지향성.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긴요한 경제의 자율화나 시장경제제도의 발달에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한다. 둘째, 고도의 전문직업인을 요구하기보다는 원만한 됨됨이를 중시하는 직업관 혹은 인간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핵심인 ‘혁신(innovation)’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 셋째, 지식보다 지혜의 전수에 비중을 둔다는 점.

### 유교의 ‘결합’들 ‘장점’으로 재평가돼

그런데 80년대에 접어들고부터는 동아시아 5개국(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이 세계적인 고도성장국가들로 부상하면서 서양 철학자들이 지적하는 위와같은 유교사상의 일반적 결합들은 오히려 서양 철학자들의 유교사상의 이해에 대한 결합으로 지적된다. 하버드대의 ‘孔子프로젝트’라는 국가적인 연구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두 웨이밍 교수에 의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전통적인 유교 국가가 아니라 ‘신유교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은 “싱가포르에서 특이한 것은 중국에서 유래된 유교사상이며, 나 자신의 정책도 유교사상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며 舊유교사상으로도 자국 발전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뻔뻔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병락교수의 「자본주의정신과 신유교윤리」를 시발로 ‘문화평론가’ 이어령씨와 조순 前 부총리 등에 의해 경제발전의 정신적 기반으로써 유교문화가 중시되고 있다. 이같은 자신감은 서구에서는 “앞으로의 유교적 도전”이라고 운위된다. 로더덕 맥파쿠하르는



유교자본주의론은 서구로부터 시작돼, 바야흐로 국내에서도 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紙에 발표한 논문 「앞으로의 유교적 도전」에서 “1990년대나 21세기의 서양에 대한 진정한 도전은 소련의 군사적인 것과 중동의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동아시아로부터의 도전은 경제발전 스타일로부터 인간의 기본가치에 이르기까지의 포괄적인 도전이 된다”고 결론짓는다.

孔子프로젝트에서 정리한 신유교윤리는, 「마음의 경제학」에서 인용하자면, “동양전래의 유교윤리에 서양의 자본주의정신이 가미된 것”으로 8가지 특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 청교도윤리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신유교윤리는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집단주의이다. 둘째, 경쟁관계보다는 조화를 강조한다. 셋째, 개개인의 수양과 기강을 강조한다. 넷째, 화합과 협동정신에 의한 변화를 추구한다. 다섯째,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인적자본 형성을 용이케 한다. 여섯째,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므로 정부의 리더십을 중시한다. 일곱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신유교윤리는 경험에 의한 지혜의 습득과 전수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두 웨이밍 교수는 이같은 신유교윤리가 새로운 자본주의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생활의 향상’과 ‘능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중시하는 데도, 국제무대로의 진출, 올바른 국제관 혹은 국제주의 정립, 추상적 이데올로기보다는 구체적인 경제적 복지 향상으로의 관심, 문화의 발전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근간으로 두 웨이밍 교수는 경제전쟁시대를 살아가는 윤리관으로서 유교윤리와 청교도윤리를 합친 “신유교윤리”

를 제창한다. 이것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정신이 되고 있으며 바로 막스 베버가 말하는 서구 선진국의 자본주의정신인 청교도윤리에 버금가는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정리한다.

### 신유교윤리=유교윤리+청교도윤리

그러나 신유교윤리와 유교자본주의론에 대한 비판도 있다. 「현대경제이론과 한국경제의 제문제」에 「韓末 유교자본주의의 체계와 그 성격」을 쓴 김영호 교수(경북대 경제학과)는 “오늘날 유교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그 재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유교자본주의론도 구한말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반성을 거친 후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구한말의 유교자본주의론인 ‘東道西器論’은 결론적으로 지주·상인형 주변자본주의의 사상체계로써 구한말의 민족적 요구를 실현시키는 기능보다는 일본자본주의의 진출을 보조하는 기능이 강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의 근대화」(뮌달 저, 조순역, 삼성미술문화재단)에서 저자는 “힌두교는 물론이거니와 회교와 불교는 근대화 이념의 현실을 돕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제지작용과 장애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印度와 그 인접국들의 종교와 경제를 다룬 이 책은 1968년에 씌어진 것이므로 저자의 입장이 그후 어떻게 수정됐는지 혹은 고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호 교수의 입장 또한 그의 장기간의 외유로 인해 그 이후의 추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김중식 기자